



“원전 수출을 위해 원자력산업계를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원전 수출 관련 서한

‘세계로 원전 수출 하나로 국민 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원전수출국민행동’이 4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대한 국민통합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전국의 원자력공학과 학생 대표들은 원자력을 전공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한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2살의 차민수입니다. 오늘 전국의 원자력학과 대학생을 대표해서 원전 수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실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십시오.

작년에 전국 원자력 대학생들의 모임인 원자력대학생연합이 갑자기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국민과 대통령님께 호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으며,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가졌던 학생들은 ‘원자력마피아’ 소리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청정에너지로서 원자력에 확신을 갖고 이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주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개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득권 그룹이 된 한 쪽의 의견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올리는 학생들의 이야기 기도 들어주십시오.

물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학교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놓고 향후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진 연구 논문을 가져와 논란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벌이지만 대부분의 결론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찬반 양측이 함께 소통하여 합치점을 찾고, 국가의 역량을 모아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면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말을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임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의 원자력산업계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배들이 어렵게 국산화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나라에 가져올 원전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원전 한기가 수출될 때마다 몇 십조 원의 이익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에는 중소기업부터 일감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실입니

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원자력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원전 수출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두뇌에서 캐는 원자력 에너지의 세계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더욱 안전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산유국'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저희들은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당황스러워 합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해서 쓸 곳이 있을지, 우리가 꿈꿔온 미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인지, 이렇게 꿈을 포기해야 하는지.

저희는 최근 대통령님께서 UAE에 가서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응원하시고 기술의 우수함을 밝혀 주셨을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수출 강국'을 향한 저희들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기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대학생들은 남북 화해의 기운이 물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 서한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대통령님께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

2018년 4월 21일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 대표 차민수 올림